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현황조사 (2025 사업연도 기준)

2026. 04.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목 차

1. 개 요	1
2. 전국 상장법인 현황	2
가. 시도별 상장법인 현황	2
나. 권역별 상장법인 현황	2
3.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현황	3
가.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3
나. 업종별 분포 현황	5
4.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결산실적	5
가. 분석대상	5
나. 후·적자기업 현황	5
다. 전체 상장법인 결산실적	6
라. 시장별 상장법인 결산실적	6
(1) 코스피 상장법인 결산실적	6
(2) 코스닥 상장법인 결산실적	7
(3) 코넥스 상장법인 결산실적	7
5.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재무현황	9
6. 전북지역 상장법인 및 제조업체 변화 분석	11
가. 개요	11
나. 제조업체 수 및 구조 변화	13
다. 종합 분석	14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현황 조사

1 개요

- 기업의 상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한국거래소(KRX)에 주식을 등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상장 절차는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사업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 하며 상장 이후에도 공시 의무 수행과 시장 감시 체계를 통해 책임경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임.
- 이러한 과정을 거친 상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성과 신뢰도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되며 지역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업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이들 기업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바탕으로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여 비상장기업에 비해 중장기적인 투자 확대와 사업 확장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지역 내 상장기업의 규모와 분포 현황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수를 넘어 해당 지역 산업의 자본 축적 정도와 산업 생태계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 전주상공회의소가 2026년 4월 13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전체 2,769개 상장법인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는 코스피 상장법인이 13개사, 코스닥 상장법인 21개사, 코넥스 상장법인이 3개사로 총 37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거래를 위해 1956년 개설한 주식 거래소이자 우리나라의 대표 증권시장으로 코스피 안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상장 기준이 매우 엄격함
-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시장은 IT와 바이오,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주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코스피 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이 완화된 시장
-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성장 전망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장됨

2

전국 상장법인 현황

가. 시·도별 상장법인 현황

- 2026년 4월 13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2,769개사 상장법인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1,093개사(39.5%), 경기 816개사(29.5%), 충남 109개사(3.9%), 충북 100개사(3.6%), 경남 98개사(3.5%), 인천 97개사(3.5%), 부산 82개사(3.0%) 등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전년도와 비교해 18개 시·도(해외포함) 중 11곳의 상장법인 수는 증가했고 5곳이 감소했으며, 2곳이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1,107→1,093)이 14개사가 감소한 반면, 경기(805→816)와 충북(94→100)이 각각 11개사, 6개사가 증가해 상대적 확장 흐름이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름.

나. 권역별 상장법인 현황

- 권역별로는 전체 상장기업의 72.5%(2,006개사)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 12.1%(334개사), 충청권 10.4%(289개사), 광주·전남권 1.6%(45개사) 순으로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해외를 제외한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은 11번째로 1.3%(37개사)에 불과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시·도별 상장법인 현황 】

(단위 : 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영남권					전북특자도	강원특자도	제주특자도	해외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코스피	412	23	171	8	27	17	3	7	9	35	22	17	43	21	13	5	5	2	840
코스닥	652	70	608	51	78	76	12	10	13	46	36	12	52	43	21	19	2	19	1,820
코넥스	29	4	37	5	4	7	1	3	3	1	1	-	3	2	3	5	1	-	109
소계	1,093	97	816	64	109	100	16	20	25	82	59	29	98	66	37	29	8	21	2,769
합계	2,006			289			45		334					37	29	8	21	2,769	

【 시·도별 상장법인 증감 현황 】

(단위 : 개, %)

권역	수도권			총청권				광주·전남권		영남권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2025	1,093	97	816	64	109	100	16	20	25	82	59	29	98	66	37	29	8	21	2,769
비율	(39.5)	(3.5)	(29.5)	(2.3)	(3.9)	(3.6)	(0.6)	(0.7)	(0.9)	(3.0)	(2.2)	(1.0)	(3.5)	(2.4)	(1.3)	(1.0)	(0.3)	(0.8)	(100.0)
	(72.5)			(10.4)				(1.6)		(12.1)				(1.3)	(1.0)	(0.3)	(0.8)	(100.0)	
2024	1,107	95	805	65	109	94	13	21	23	81	58	30	97	71	36	28	7	21	2,761
증감	-14	2	11	-1	-	6	3	-1	2	1	1	-1	1	-5	1	1	1	-	8

3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중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법인은 총 37개사로 전국 비중의 1.3%에 불과함.
- 2024년 기준 36개사였던 전북지역 상장법인 수는 2025년 코스닥 상장기업 1개사 증가로 전년 대비 1개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전북특별자치도내 시장형태별 상장법인 증감】

구분		업체명	업종	소재지
코스닥	신규상장	(주) 엔 알 비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군산시

가.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군산시에 10개사가 입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 9개사, 완주군 7개사, 전주시 4개사, 정읍시 3개사, 김제시 2개사, 장수군·부안군 각 1개사 순으로 조사됨.

○ 전년 대비 증가 : 군산시 1개사

【 전북특별자치도내 상장법인 자치단체별 현황 】

(단위 : 개)

구분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합계
코스피	1	2	-	4	4	1	1	-	13
코스닥	3	5	1	6	3	1	1	1	21
코넥스	-	-	-	-	2	1	-	-	3
합계	4	7	1	10	9	3	2	1	37

- (주)엔알비는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2025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함.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현황】

(업체명 가나다 순)

구분	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코스피	광전자(주)	최재완	반도체 제조업	익산시
	두산퓨얼셀(주)	이두순, 윤재동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익산시
	(주)디에이치오토박스	최준용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김제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김연섭	전자부품 제조업	익산시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배원, 김태준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완주군
	솔루션첨단소재(주)	곽근만	전자부품 제조업	익산시
	아진전자부품(주)	서중호, 문종은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정읍시
	(주)SH에너지화학	정케빈규봉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군산시
	일진하이솔루스(주)	임만규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완주군
	(주)JB금융지주	김기홍	기타 금융업	전주시
	페이퍼코리아(주)	문성운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군산시
	피케이씨(주)*	윤해구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군산시
	(주)한농화성	김응상, 경상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군산시
코스닥	(주)강원에너지	신진용, 하재득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군산시
	(주)동우팜투테이블	김태호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군산시
	(주)디에이치오토리드	이석근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완주군
	로젠(주)*	최용석, 김동주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김제시
	메이슨캐피탈(주)	김태균	기타 금융업	전주시
	비나텍(주)	성도경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전주시
	성일하이텍(주)	이강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군산시
	(주)시지트로닉스	심규환	반도체 제조업	완주군
	(주)신진에스엠	김은식, 김은주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장수군
	(주)알에프세미	반재용	반도체 제조업	완주군
	(주)에쎬테크	조시영, 김성범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군산시
	(주)엔알비	강건우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군산시
	(주)오디텍	박병근	반도체 제조업	완주군
	오성첨단소재(주)	김유신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익산시
	(주)이렘	김우진	1차 철강 제조업	부안군
	이원컴포텍(주)	박주성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정읍시
	(주)제이아이테크	함석헌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군산시
	(주)창해에탄올	이연희, 임우석	알코올음료 제조업	전주시
	(주)폴라리스우노	최용성	화학성유 제조업	완주군
	(주)하림	김홍국, 정호석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익산시
(주)하림지주	김홍국	기타 금융업	익산시	
코넥스	바이오텐(주)	김영철	기타 식품 제조업	정읍시
	세븐브로이맥주(주)	김강삼	알코올음료 제조업	익산시
	(주)에스제이캠	배동수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익산시

* 사명 변경

- 백광산업(주) → 피케이씨(주)
- 코웰패션(주) → 로젠(주)

나. 업종별 분포 현황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10개사, 화학·의약품 8개사, 음식료 5개사, 금속·기계 4개사, 자동차·운송 4개사, 금융 3개사, 종이와 플라스틱, 소매업이 각각 1개사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업종별 분포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음식료	종이	화학·의약품	플라스틱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운송	금융	소매	합 계
코스피	-	1	4	-	-	5	2	1	-	13
코스닥	3	-	3	1	4	5	2	2	1	21
코넥스	2	-	1	-	-	-	-	-	-	3
합 계	5	1	8	1	4	10	4	3	1	37

4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결산실적(2025 사업연도 기준)

가. 분석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코스피(13), 코스닥(21), 코넥스(3) 상장법인 37개사 중 3월 결산법인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 메이슨캐피탈(주)

나. 후적자기업 현황

- 조사 대상 기업 36개사 중 20개사가 당기순이익 후자를 기록한 가운데, 16개사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전년대비 후자로 전환한 기업은 4개사,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5개사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이익 현황 】

(단위 : 개)

구 분	소 계	구 분			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후 자	지 속	16 (44.4%)	8	8	-	20 (55.6%)
	전 환	4 (11.1%)	-	4	-	
적 자	지 속	11 (30.6%)	3	5	3	16 (44.4%)
	전 환	5 (13.9%)	2	3	-	

※ 당기순이익 기준

다. 전체 상장법인 결산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36개사의 전체 결산실적 매출액은 6조 4,547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1%(5,392억 1천5백만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536억 9백만원으로 4.3%(230억 4천8백만원), 당기순이익은 5,238억 9천4백만원으로 1.7%(89억 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률은 8.6%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으며 순이익률은 8.1%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상장법인 결산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증감률(%)
매 출 액	6,454,741	5,915,526	539,215	9.1
영업이익	553,609	530,561	23,048	4.3
당기순이익(손실)	523,894	514,985	8,909	1.7
영업이익률(%)	8.6	9.0	△0.4%p	-
순이익률(%)	8.1	8.7	△0.6%p	-

라. 시장별 상장법인 결산실적

(1) 코스피 상장법인 결산실적

- 코스피 상장법인 13개사의 전체 결산실적 매출액은 3조 1,782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1,103억 6천3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은 9.9%(459억 8백만원)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34.8%(2,186억 7천3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영업이익률은 13.1%로 전년 대비 2.0%p 감소했으며, 순이익률은 12.9%로 전년 대비 7.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흑자기업 중 피케이씨(주)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376.6%(71억 6백만원) 증가했으며 (주)JB금융지주는 21.4%(929억 5천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전북특별자치도 코스피 상장법인 결산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증감률(%)
매 출 액	3,178,213	3,067,850	110,363	3.6
영업이익	416,938	462,846	△45,908	△9.9
당기순이익(손실)	410,089	628,762	△218,673	△34.8
영업이익률(%)	13.1	15.1	△2.0%p	-
순이익률(%)	12.9	20.5	△7.6%p	-

(2) 코스닥 상장법인 결산실적

- 코스닥 상장법인 20개사의 전체 결산실적 매출액은 3조 2,556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4,305억 3천6백만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419억 3천8백만원으로 89%(668억 3천1백만원) 증가, 당기순이익은 1,290억 2천5백만원으로 239.4%(2,215억 6천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영업이익률은 4.4%로 전년 대비 1.7%p 증가했으며, 순이익률은 4.0%로 전년 대비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후자기업 중 (주)하림지주는 전년대비 순수익이 534.7%(739억 9천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동우팜투테이블은 508.2%(358억 6천6백만원) 증가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 코스닥 상장법인 결산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증감률(%)
매 출 액	3,255,625	2,825,089	430,536	15.2
영업이익	141,938	75,107	66,831	89.0
당기순이익(손실)	129,025	-92,542	221,567	239.4
영업이익률(%)	4.4	2.7	1.7%p	-
순이익률(%)	4.0	-3.3	7.3%p	-

(3) 코넥스 상장법인 결산실적

- 코넥스 상장법인 3개사의 전체 결산실적 매출액은 209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5%(16억 8천2백만원)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52억 6천7백만원으로 28.8%(21억 2천6백만원) 증가, 당기순손실액은 -152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8.6%(60억 8천9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영업이익률은 -25.2%로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며, 순이익률은 -72.8%로 전년 대비 2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 코넥스 상장법인 결산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증감률(%)
매 출 액	20,903	22,585	△1,682	△7.5
영업이익	-5,267	-7,393	2,126	28.8
당기순이익(손실)	-15,220	-21,309	6,089	28.6
영업이익률(%)	-25.2	-32.7	7.5%p	-
순이익률(%)	-72.8	-94.4	21.6%p	-

【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별 결산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체 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손실) (2025년)	당기순이익(손실) (2024년)
코스피	광전자(주)	131,270	983	4,362	11,086
	두산퓨얼셀(주)	454,853	-103,731	-130,245	-8,039
	(주)디에이치오토넥스	35,120	220	753	114,657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273,283	-77,557	-49,615	-34,824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506,003	60,678	55,485	55,026
	솔루스첨단소재(주)	124,092	15,006	15,655	38,355
	아진전자부품(주)	152,213	6,780	4,827	1,212
	(주)SH에너지화학	93,785	-11,830	-10,268	-9,838
	일진하이솔루스(주)	81,586	-11,164	-1,959	1,817
	(주)JB금융지주	603,739	525,289	526,574	433,622
	페이퍼코리아(주)	238,651	-2,552	-18,339	19,311
피케이씨(주)*	269,125	11,239	8,993	1,887	
(주)한농화성	214,493	3,577	3,866	4,490	
코스닥	(주)강원에너지	93,482	-2,963	-1,867	3,655
	(주)동우팜투테이블	321,961	13,550	28,809	-7,057
	(주)디에이치오토리드	206,008	5,161	10,162	4,256
	로젠(주)*	111,506	7,137	22,038	16,080
	메이슨캐피탈(주)*	3월 결산	3월 결산	3월 결산	3월 결산
	비나텍(주)	81,019	-1,582	-12,035	-15,278
	성일하이텍(주)	186,269	-43,786	-82,637	-95,752
	(주)시지트로닉스	12,749	-7,586	-8,013	-5,691
	(주)신진에스엠	40,447	-304	-379	774
	(주)알에프세미	21,365	1,338	1,317	-3,632
	(주)에쎄테크	57,909	1,970	378	-2,939
	(주)엔알비	59,482	4,461	-563	2,104
	(주)오디텍	37,960	-2,264	899	5,446
	오성첨단소재(주)	149,970	28,316	44,639	18,390
	(주)이렘	91,995	-13,890	-16,832	-14,898
	이원컴포텍(주)	56,577	1,613	-4,060	-22,906
(주)제이아이테크	52,383	12,215	8,303	14,303	

구분	업체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손실) (2025년)	당기순이익(손실) (2024년)
	(주)창해에탄올	103,319	17,350	14,155	12,389
	(주)플라리스우노	78,194	3,828	1,295	2,342
	(주)하림	1,392,609	46,599	35,584	-17,966
	(주)하림지주	100,421	70,775	87,832	13,838
코빅스	바이오텐(주)	3,749	-905	-831	-1,204
	세븐브로이맥주(주)	6,831	-5,364	-12,710	-17,495
	(주)에스제이캠	10,323	1,002	-1,679	-2,610

* 코스닥 상장기업 ‘메이슨캐피탈(주)’ 은 3월 말 결산법인

* 사명 변경

- 백광산업(주) → 피케이씨(주)
- 코웰패션(주) → 로젠(주)

5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 재무현황

- 조사 대상 기업 36개사의 2025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16조 9,431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6%(1조 7,569억 3천6백만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6조 6,976억 7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8%(1조 1,085억 9천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총계는 10조 2,457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8%(6,485억 6천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재무안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부채비율은 65.4%로 전년대비 7.2%p 증가함.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상장법인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률(%)
자산총계	16,943,176	15,186,240	1,756,936	11.6
부채총계	6,697,673	5,589,082	1,108,591	19.8
자본총계	10,245,720	9,597,158	648,562	6.8
부채비율(%)	65.4	58.2	7.2%p	-

【 전북특별자치도 상장법인별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업체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코스피	광전자(주)	257,789	17,289	240,500	7.2
	두산퓨얼셀(주)	1,201,875	827,992	373,883	221.5
	(주)디에이치오토박스	50,112	16,590	33,523	49.5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1,045,281	197,270	848,011	23.3

구분	업체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519,547	65,985	453,561	14.5
	솔루스첨단소재(주)	875,496	170,390	705,106	24.2
	아진전자부품(주)	110,295	76,193	34,103	223.4
	(주)SH에너지화학	99,765	31,842	67,924	46.9
	일진하이솔루스(주)	347,972	32,840	315,131	10.4
	(주)JB금융지주	3,811,964	1,074,917	2,737,047	39.3
	페이퍼코리아(주)	418,982	154,089	264,894	58.2
	피케이씨(주)*	604,212	382,828	221,384	172.9
	(주)한농화성	238,342	63,959	174,383	36.7
코스닥	(주)강원에너지	87,585	46,550	41,035	113.4
	(주)동우팜투테이블	279,315	40,469	238,846	16.9
	(주)디에이치오토리드	198,293	120,779	77,514	155.8
	로젠(주)*	971,768	573,686	398,082	144.1
	메이슨캐피탈(주)*	3월 결산	3월 결산	3월 결산	3월 결산
	비나텍(주)	151,868	93,817	58,051	161.6
	성일하이텍(주)	605,418	453,940	151,478	299.7
	(주)시지트로닉스	34,037	11,924	22,113	53.9
	(주)신진에스엠	91,356	14,454	76,902	18.8
	(주)알에프세미	20,233	7,373	12,860	57.3
	(주)에센테크	67,176	41,275	25,902	159.4
	(주)엔알비	175,316	89,835	85,481	105.1
	(주)오디텍	134,140	5,196	128,944	4
	오성첨단소재(주)	330,021	28,087	301,934	9.3
	(주)이렘	100,256	60,415	39,841	151.6
	이원컴포텍(주)	23,577	14,013	9,564	146.5
	(주)제이아이테크	125,900	47,158	78,742	59.9
	(주)창해에탄올	182,426	37,811	144,614	26.1
	(주)플라리스우노	142,195	23,095	119,099	19.4
	(주)하림	831,206	521,614	309,592	168.5
(주)하림지주	2,768,543	1,304,604	1,463,939	89.1	
코넥스	바이오텐(주)	7,187	5,184	2,003	258.8
	세븐브로이맥주(주)	19,363	30,549	-11,185	-273.1
	(주)에스제이캠	14,365	13,661	919	1486.5

* 코스닥 상장기업 ‘메이슨캐피탈(주)’ 은 3월 말 결산법인

* 사명 변경

- 백광산업(주) → 피케이씨(주)

- 코웰패션(주) → 로젠(주)

가. 개요

- 최근 10년간 전북지역 산업 구조는 상장법인과 제조업체 수 증가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제조업체 증가에 비해 상장법인 확대가 제한되면서 기업의 규모화 및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1) 상장법인 수 변화

- 전북지역 상장법인은 2016년 21개사에서 2026년 37개사로 늘어나 약 7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형적 성장을 보였음. 다만 전국 대비 절대 규모가 작아 지역 산업 전반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10개사에서 13개사로 소폭 늘어난 반면, 코스닥은 10개사에서 21개사로 크게 확대되며 전체 증가를 주도하였고, 코넥스도 1개사에서 3개사로 증가함. 이는 전북지역 상장법인의 확대가 대기업보다는 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함.

(2) 전국 대비 상장법인 분포

- 2016년 대비 2026년 기준 전국 상장법인 수는 2,043개에서 2,769개로 증가하며 양적 성장세를 보였음.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상장법인은 37개사로 전국의 1.3%에 그쳐 절대 규모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기업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 구조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실제로 수도권은 같은 기간 1,437개에서 2,006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비중도 70.1%에서 72.5%로 확대되어 상장법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됨. 반면 비수도권은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와 점유율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유지되고 있음.

[전국 상장법인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26년					2016년					증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중(%)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중(%)	
수도권	606	1,330	70	2,006	72.5	538	822	77	1,437	70.1	569
충청권	55	217	17	289	10.4	49	129	15	193	9.4	96
광주·전남권	16	23	6	45	1.6	17	13	6	36	1.8	9
영남권	138	189	7	334	12.1	142	159	12	313	15.3	21
전 북	13	21	3	37	1.3	10	10	1	21	1.0	16
강 원	5	19	5	29	1.0	3	14	-	17	0.8	12
제 주	5	2	1	8	0.3	8	4	-	12	0.6	-4
해 외	2	19	-	21	0.8	2	12	-	14	1.0	7
합 계	840	1,820	109	2,769	100.0%	769	1,163	111	2,043	100.0%	726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광주·전남권,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3) 상장법인 실적 분석

□ 2025년 기준 전북지역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6조 4,547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08.8% 증가하며 외형이 확대되었고, 영업이익은 868.7% 급증하여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당기순이익 또한 102.1% 증가하여 전반적인 이익 창출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실적(2015 사업년도 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15년	증 감	증감률(%)
매 출 액	6,454,741	3,091,421	3,363,320	108.8
영업이익	553,609	57,150	496,459	868.7
당기순이익(손실)	523,894	259,256	264,638	102.1
영업이익률(%)	8.6	1.8	6.8%p	-
순이익률(%)	8.1	8.4	△0.3%p	-

□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닌 비용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 사업 구조 재편 등 질적 성장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전북 상장기업의 수익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함.

나. 제조업체 수 및 구조 변화

(1) 제조업체 수 증가

- 전북지역 제조업체 수는 2015년 4,890개에서 2025년 16,582개로 증가하여 239.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이는 산업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제조업 기반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줌.

구분	식음료	섬유 의복	목재 나무	종이 인쇄	화학 제품	비금속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기타	합계
2015년	981	277	149	180	572	484	1,085	371	455	336	4,890
2025년	4,242	748	410	528	1,546	896	3,699	1,328	1,057	2,128	16,582
증가율(%)	332.4%	170.0%	175.2%	193.3%	170.3%	85.1%	240.9%	258.0%	132.3%	533.3%	239.1%

- 업종별로는 식음료가 981개에서 4,242개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금속기계(1,085→3,699), 전기전자(371→1,328), 화학제품(572→1,546)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고르게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남.
- 증가율 측면에서도 식음료(332.4%), 전기전자(258.0%), 금속기계(240.9%)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가 확인되며, 전북 제조업이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비금속 업종은 증가율이 85.1%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성장 격차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기업 규모 구조

- 그러나 제조업체의 규모 구조를 보면 한계도 뚜렷함. 2025년 기준 전체 제조업체 16,582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16,127개로 약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409개,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에 불과함.
- 2015년에도 전체 4,890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4,50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제조업체 수는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 중심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제조업체 증가에 따른 양적 성장으로 산업 저변은 확대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 중심 구조로 인해 기업 규모의 고도화와 중견·대기업군의 성장 및 유입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다. 종합 분석

- 상장법인과 제조업체 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산업은 양적 확대에는 성과를 보였으나 질적 성장으로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제조업체 증가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상장법인 확대 또한 코스닥 중심에 편중되어 산업 저변 확대와 기업 규모 성장 간 격차가 나타남. 이는 창업과 시장 진입은 활발한 반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여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임을 의미함.
- 더불어 수도권 중심의 산업·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기업 집적과 자본 유입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따라 투자 유치 확대, 세제·규제 인센티브 강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기업 수 확대를 기반으로 스케일업과 상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구조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